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보고객지원국<br>정보고객정책과                  | 과 장 전현진<br>사무관 권석훈 | 042-481-5460<br>042-481-5703 |
| <br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| 2019년 9월 23일(월)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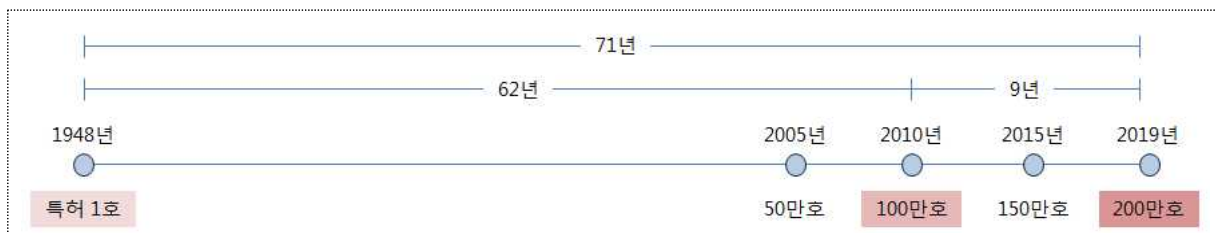
## 통계로 들여다 본 특허 200만호 발자취

- 62년 걸려 100만호, 그후 9년 만에 200만호 달성 -

□ 대한민국의 200만 번째 특허가 등록됐다. [그림 1]

- 특허청(청장 박원주)은 생명공학 기업 ‘오름테라퓨틱’의 종양성장 억제에 관한 바이오 기술이 특허 200만호로 등록됐다고 밝혔다.
- 이는 1948년에 중앙공업연구소(現 국가기술표준원)의 ‘유화염료 제조법’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특허로 등록된 이래 71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. 특허 100만호까지 62년이 걸렸지만 그 후 불과 9년 만에 특허 200만호를 달성한 것이다.

〈대한민국 특허 1호부터 200만호까지의 71년〉



- 최근 10년간의 특허 등록은 109만 건으로, 그 이전 61년간의 특허 등록(92만 건)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1980년대까지 2만여 건을 기록하던 특허 등록건수는 199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여 22만 건을 기록한 후, 2000년대에 67만 건,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100만 건이 넘는 특허가 등록됐다.

- 특히, 최근 약 10년 간 등록된 특허(109만 건)가 1948년부터 2009년까지 61년 간 등록된 특허(92만 건)보다 더 많다는 것은 생산·제조 중심에서 지식·기술 기반의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전환 되어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□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, 1980년대까지 특허 등록의 주류였던 화학 및 섬유 분야의 비중은 낮아지고, 2000년대 들어 반도체, 휴대 전화 등 IT 분야의 특허 등록이 급증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. [표 1]

- 우리나라 특허에 기술 분류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1980년 이후를 보면, 1980년대에는 ‘유기정밀화학’ 및 ‘섬유제지기계’ 분야의 특허 등록이 가장 많았다.
-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변화에 따라 ‘반도체’, ‘컴퓨터 기술’, ‘토목공학’, ‘디지털통신’ 등 IT 분야의 특허 등록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1990년대 이전에는 외국인이 특허 등록의 다수를 차지했으나, 1990년대 이후에는 국내 기업의 특허 등록이 본격화되면서 내국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. [표2, 그림3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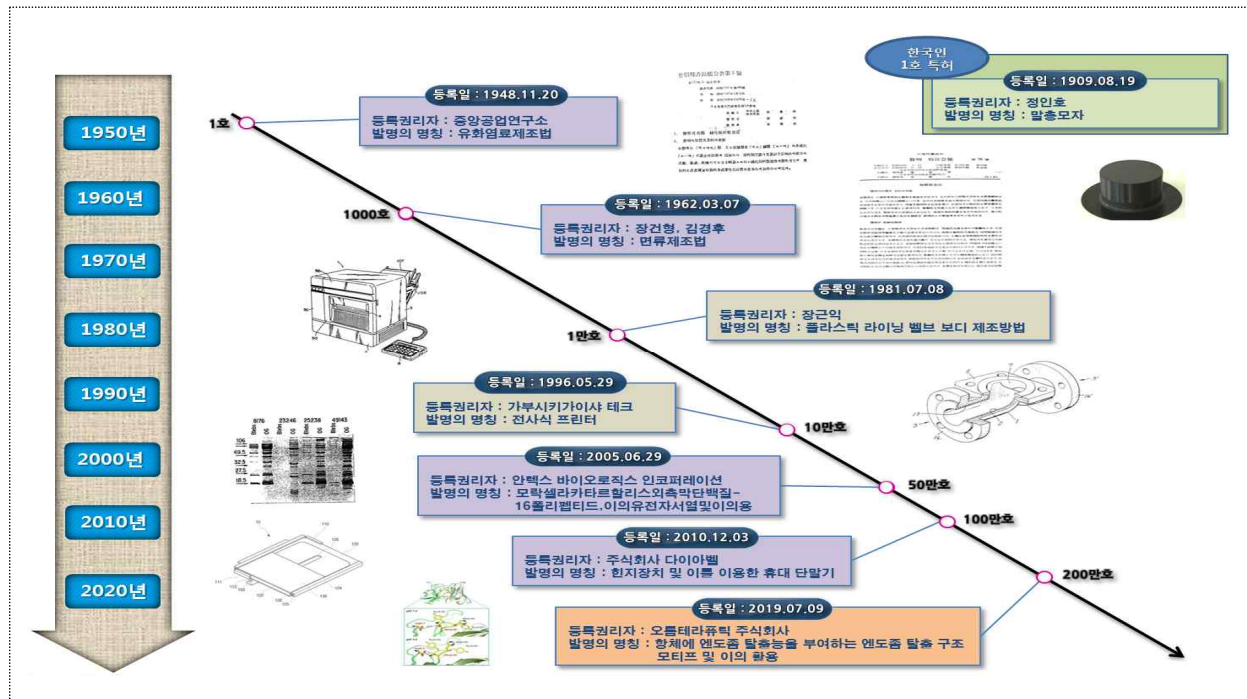
- 1980년대까지는 외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3.2%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.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우리 국민 및 기업의 특허 등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, 2000년대에는 내국인이 전체 특허 등록의 71.8%를 차지하면서 외국인(28.2%)을 앞지르게 됐다.
-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특허 등록이 늘어나고 대기업의 특허 등록은 다소 줄어들면서, 외국기업, 중소기업, 대기업 등이 비슷한 특허 등록건수를 보이고 있다.

- 최근 들어 여성 및 학생·청년층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면서 그 특허 등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 [그림 4]
  - 1980~1990년대까지 2~3%였던 여성의 특허 등록 비중은 2000년대에 들어서 8.3%, 2010년대에는 12.5%까지 증가했다. 2019년에는 이 비중이 13.3%까지 늘어난 것을 보면 향후에도 여성의 특허 등록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  - 또한, 1980년대에 3.6%였던 10~20대의 특허 등록 비중이 2000년대에 들어서 5.1%, 2010년대에 7.9%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초·중·고 발명교육을 강화해 온 정부의 정책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외국인 특허 등록의 대다수는 일본, 미국이었으며,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특허 등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[표 3]
  - 일본은 외국인 특허 등록의 40~50% 정도를 꾸준히 점유하고 있으며, 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. 일본에 이어, 미국도 꾸준히 20~30%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, 특허 등록 건수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- 한편, 2010년대 들어 신흥 지식재산 강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특허 등록국으로 나타나, 중국도 우리 시장에 본격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- 특허청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“최근 미·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대내외 환경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”며, “특허 200만호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인정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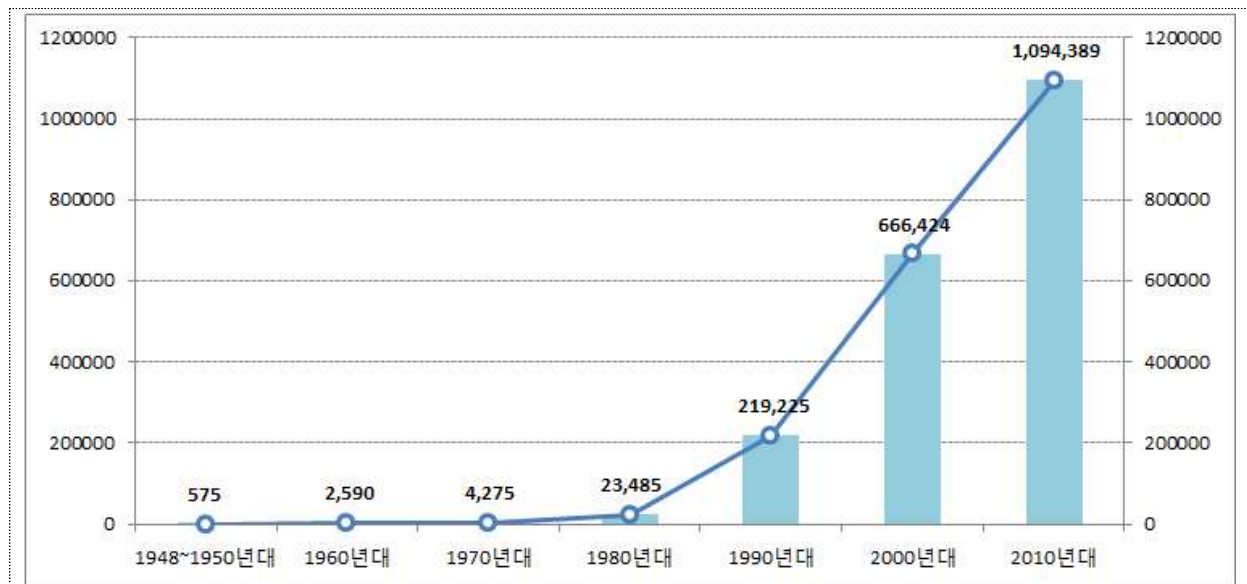
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권석훈 사무관(☎ 042-481-570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그림 1] 대한민국 특허 등록 2백만호 달성 역사



[그림 2] 연대별 특허 등록 건수

(단위 : 건)



[표 1] 연대별 특허 다등록 기술 분류(상위 10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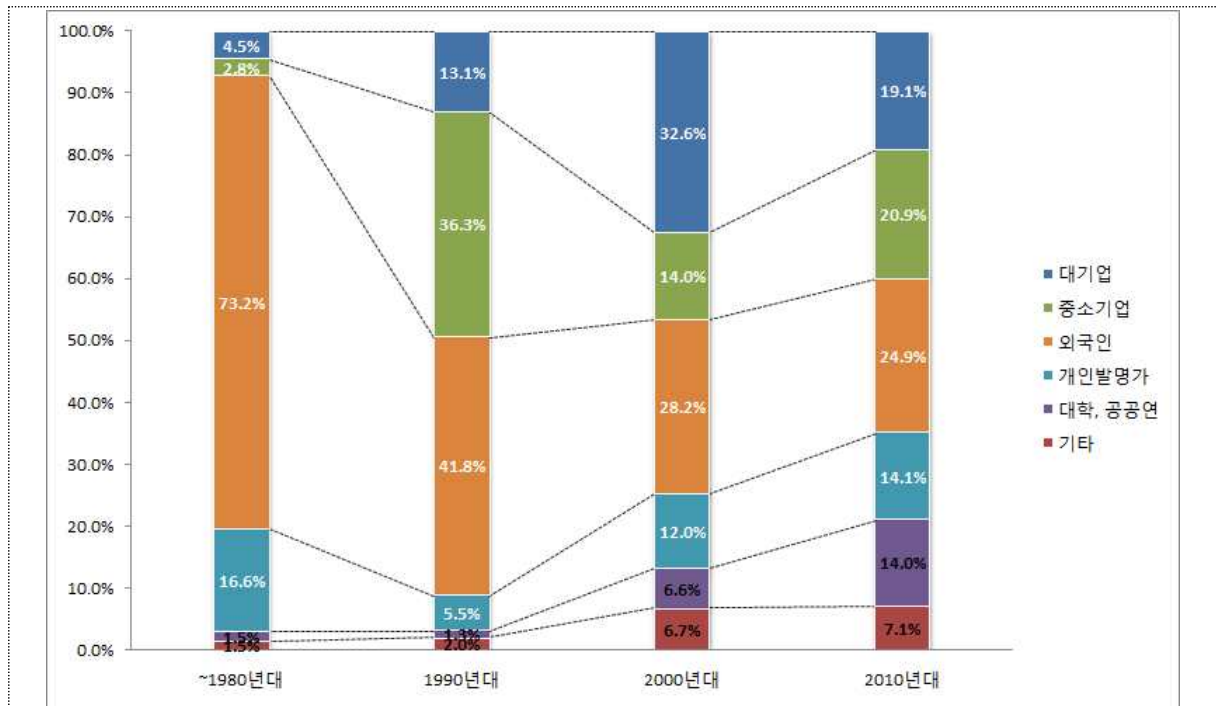
| 순위 | ~1980년대   |       | 1990년대   |       | 2000년대   |      | 2010년대   |   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| 분류명       | 비중    | 분류명      | 비중    | 분류명      | 비중   | 분류명      | 비중   |
| 1  | 유기정밀화학    | 18.0% | 오디오/영상기술 | 11.6% | 반도체      | 9.8% | 전기기계/에너지 | 8.0% |
| 2  | 섬유/제지기계   | 7.0%  | 반도체      | 9.0%  | 오디오/영상기술 | 8.1% | 반도체      | 6.2% |
| 3  | 전기기계/에너지  | 5.7%  | 컴퓨터기술    | 6.1%  | 전기기계/에너지 | 7.5% | 컴퓨터기술    | 5.8% |
| 4  | 오디오/영상기술  | 4.9%  | 전기기계/에너지 | 5.9%  | 원거리통신    | 6.9% | 운송       | 5.2% |
| 5  | 재료/금속학    | 4.8%  | 운송       | 5.5%  | 컴퓨터기술    | 6.3% | 토목공학     | 5.1% |
| 6  | 기타특수기계    | 4.4%  | 원거리통신    | 4.8%  | 광학       | 4.9% | 디지털통신    | 4.4% |
| 7  | 기초재료화학    | 3.8%  | 유기정밀화학   | 3.8%  | 운송       | 4.9% | 오디오/영상기술 | 4.2% |
| 8  | 공작기계      | 3.8%  | 광학       | 3.5%  | 토목공학     | 3.8% | 측정       | 4.1% |
| 9  | 고분자화학/폴리머 | 3.5%  | 재료/금속학   | 3.1%  | 기타특수기계   | 2.7% | 광학       | 3.6% |
| 10 | 기타소비재물품   | 3.4%  | 섬유/제지기계  | 3.0%  | 디지털통신    | 2.6% | 기타특수기계   | 3.6% |

※ 세계지식재산권기구(WIPO)의 '35대 국제특허분류'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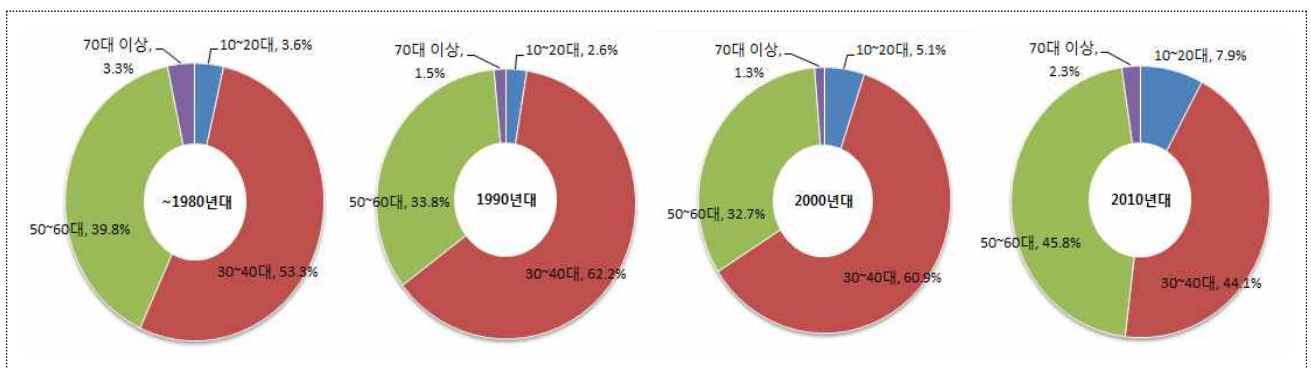
[표 2] 연대별 특허 다등록 기업(상위 10대)

| 순위 | ~1980년대 |      | 1990년대    |        | 2000년대    |        | 2010년대    |        |
|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   | 등록 권리자명 | 등록건수 | 등록 권리자명   | 등록건수   | 등록 권리자명   | 등록건수   | 등록 권리자명   | 등록건수   |
| 1  | 히다치     | 600  | 삼성전자      | 26,384 | 삼성전자      | 52,765 | 엘지전자      | 26,273 |
| 2  | 엘지이아이   | 352  | 대우전자      | 5,945  | 엘지전자      | 31,984 | 삼성전자      | 26,243 |
| 3  | 삼성전자    | 347  | 현대자동차     | 5,820  | 현대자동차     | 22,089 | 현대자동차     | 18,275 |
| 4  | 소니      | 341  | 엘지전자      | 4,704  | 에스케이하이닉스  | 18,268 | 포스코       | 13,438 |
| 5  | 일라이릴리   | 324  | 대우전자      | 3,332  | 삼성에스디아이   | 12,723 | 엘지디스플레이   | 12,861 |
| 6  | 요시다코오교오 | 310  | 현대전자산업    | 3,152 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| 9,728  | 엘지화학      | 11,162 |
| 7  | 미쓰비시    | 252  | 엘지이아이     | 2,933  | 포스코       | 9,565  | 퀄컴        | 9,160  |
| 8  | 씨비에스    | 248 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| 2,762  | 엘지이아이     | 6,543  | 삼성중공업     | 7,352  |
| 9  | 헬스트게엠베하 | 216  | 대우자동차     | 2,433  | 동부일렉트로닉스  | 6,409  | 한국전자통신연구원 | 7,151  |
| 10 | 도시바     | 204  | 도시바       | 2,173  | 삼성전기      | 6,026  | 한국과학기술원   | 6,833  |

[그림 3] 특허 등록자 유형별 특허 등록 비중



[그림 4] 연령대별 특허 등록 점유율 추이



[표 3] 우리나라에 특허 등록한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(상위 5대)

| 순위 | 국가명 | ~1980년대 |       | 국가명  | 1990년대 |       | 국가명  | 2000년대 |       | 국가명 | 2010년대  |       |
|----|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|-------|
|    |     | 등록건수    | 비중    |      | 등록건수   | 비중    |      | 등록건수   | 비중    |     | 등록건수    | 비중    |
| 1  | 일본  | 9,731   | 43.0% | 일본   | 53,071 | 58.0% | 일본   | 99,052 | 52.7% | 일본  | 109,080 | 41.0% |
| 2  | 미국  | 7,055   | 31.2% | 미국   | 22,233 | 24.3% | 미국   | 43,047 | 22.9% | 미국  | 72,925  | 27.4% |
| 3  | 독일  | 1,534   | 6.8%  | 독일   | 4,917  | 5.4%  | 독일   | 14,090 | 7.5%  | 독일  | 21,941  | 8.3%  |
| 4  | 프랑스 | 755     | 3.3%  | 프랑스  | 2,437  | 2.7%  | 프랑스  | 5,569  | 3.0%  | 프랑스 | 9,970   | 3.8%  |
| 5  | 스위스 | 747     | 3.3%  | 네덜란드 | 1,959  | 2.1%  | 네덜란드 | 5,225  | 2.8%  | 중국  | 9,005   | 3.4%  |